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5.(화) 14:30 < 7.26.(수) 조간 > 배포 2023. 7. 25.(화)

액화천연가스(LNG)·수소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호주 투자 지원방안 논의

-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 면담

한국과 호주는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자원 공급망 구축에 있어 서로에게 중요한 협력 동반자(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기업 차원의 호혜적인 투자와 협력이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호주는 니켈, 우라늄, 철광석 매장량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이자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수입 비중 1위의 핵심 교역국이다.

* 우리나라 대(對)호주 수입 비중('22년) : 액화천연가스(LNG)(30.1%, 1위), 석탄(43.9%, 1위), 철광(61.8%, 1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7월 25일(화) 오후, 서울에서 크리스 보웬(Chris Bowen) 호주 기후변화·에너지 장관과 면담하고 ▲광물, 액화천연가스(LNG) 등 핵심자원 확보, ▲청정수소, 친환경(그린) 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등 탄소 중립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창양 장관은 온실가스 다 배출 시설의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호주 '세이프가드 매커니즘'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우려를 전달하였고 정상적 투자 진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국의 탄소 중립 달성 방안으로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협력에 대해서도 한국-호주 간 협력 사업(프로젝트)**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CO_2)를 포집하여 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주입 및 영구 저장

끝으로, 양측은 청정수소, 친환경(그린) 철강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호주의 풍부한 생산 역량을 결합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력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의체도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재은 (044-203-4420)
		담당자	사무관	박주형 (044-203-5251)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중남미대양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630)
		담당자	사무관	김윤주 (044-203-4123)

新성장 4.0 상상을 현실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